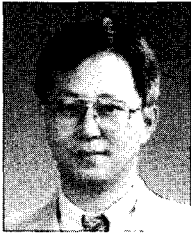


Soft & Hard Tissue Management in Implant Dentistry



박 광 범 (대구 미르치과병원 원장)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경북대학병원 치주과 수료
UCLA 치과대학 치주과 방문연구원
Perio-Line Institute Director
미르 치과병원 대표원장

모든 치과치료의 목표는 기능과 심미의 회복에 있다. 임플란트 치료는 상실된 치아의 치관과 치근뿐만 아니라 주변의 골조직과 연조직까지 모두 회복시켜야 하므로, 완벽한 치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강내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한 적절한 분석과 함께 동원 가능한 모든 테크닉들이 시기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임플란트 수술에 대한 현재의 개념은 예전에 Dr. Branemark가 소개하였던 것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일차수술과 이차수술의 규칙이 모호하게 되었고, 치료의 time table 이 거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technique의 복합적 사용으로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치에 대한 치과의사와 환자들의 기대감도 엄청나게 증가하였다. 그러므로 '항상'은 아니더라도 '가급적' 이상적인 형태의 치조골, 치은, 치관 및 기타조직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재현해

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절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환자의 상태와 술자의 능력에 따라 천차만별의 치료계획이 세워질 수 있으며, 어느 것이라도 적절한 rationale를 붙일 수 있으리라. 치료의 goal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치관과 peri-implant condition을 회복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였다면, 설사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질책하여서는 안된다. 아직까지 어떤 임상가도 신이 주신 사람치아의 아름다움을 완벽하게 재현해 내지 못하고 있으므로, 어쩌면 실패하였더라도 그 속에 진실로 통하는 가장 짧은 지름길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선학들의 성공적인 치료들을 충분히 반복 숙달함과 동시에, '이룰 수 없다'는 통념들에 도전하는 노력이야말로 완벽한 자연치를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